

KINU Insight

2017
No.2

중국의 19차 당 대회 평가와 정책적 고려사항

전병곤 저

KINU Insight 17-02

중국의 19차 당 대회 평가와 정책적 고려사항

전병곤 국제전략연구실장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 참여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차 례

I. 문제 제기	1
II. 19차 당 대회의 주요 내용 및 평가	2
1. 통치이념: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	2
2. 신지도부 구성	5
III. 19대 이후 대내외정책 방향	11
1. 대내정책 방향	11
2. 대외정책 방향	14
IV. 한반도에 대한 합의	17
1. 미중관계의 전망과 대한반도 영향	17
2. 한반도정책과 한중관계	18
3. 북핵정책 및 북중관계	19
V. 정책적 고려사항	23

I 문제 제기

- 중국은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이하 19대)와 25일 중국공산당 제19기 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이하 19기 1중전회)를 개최하고 향후 5년(-2022) 간 국정 방향과 국정 운영을 담당할 신 지도부를 구성했음.
- 이번 회의는 시진핑(習近平)의 집권 2기를 공식화하였는바, 시진핑의 통치 이념과 권력기반 그리고 이에 따른 중국의 대내외정책 향배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됨.
 - 특히, 19대 보고에 한반도 관련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와 북중관계 및 한중관계에 미칠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한 대응 마련도 시급한 과제
- 따라서 본 보고서는 19대에서 확정된 주요 결과를 평가하고, 시진핑 2기의 대내외정책 방향을 분석·전망한 후 한반도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함.

II 19차 당 대회 주요 내용 및 평가¹⁾

- 금번 19대는 전국의 중국공산당원(8,900여만 명)을 대표하는 2,338명(대표 2,280명+ 특별초청 대표 74명- 불참 16명)이 참가해 아래의 주요 내용을 결정하였음.
 - 18기 7중전회(10.11.-14.)에서 마련한 정치보고 초안을 청취, 심의
 - 중국공산당 장정(이하 당장)의 수정안 의결
 - 새로운 임기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 선출

- 이어 25일 개최된 19기 1중전회에서는 사실상의 중국 지도부라 할 수 있는 중국공산당의 정치국상무위원 및 정치국원,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및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및 위원 등을 선출하였음.

1. 통치이념: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

- 금번 19대 보고의 핵심은 당과 사회주의, 중국의 꿈을 결합시킨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중국의 통치이념으로 도입한 것임.
 - 중국공산당의 당헌(黨憲)인 당장(黨章)에도 중국공산당의 지도 이념으로 추가
 - 19대 기간 중국공산당의 주요 전략방향

1) 이하에서는 다음의 19대 보고를 주로 참고하였음. 習近平, “決勝全面建成小康社會 奪取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勝利: 在中國共產黨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http://cpc.people.com.cn/19th/n1/2017/1027/c414395-29613458.html>> (검색일: 2017. 10.26.).

- 19대의 주제는,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깊이 새겨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가치를 높이 들고 소강(小康)사회 전면건설에 결정적으로 승리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하자’임.

 - 키워드는 초심과 사명, 소강사회의 전면건설(2020),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중화민족의 부흥과 중국의 꿈
 - 중국공산당은 현 국내외 정세를 전략적 기회와 도전에 직면한 관건적 시기로 파악
 - 덩샤오핑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로 돌입하면서 중화민족주의와 결합

- 중국은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서 신시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 ①과거 중국혁명과 개혁개방의 역사적 경험을 계승해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시대,
 - ②전면적인 소강사회를 실현함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길로 진입하는 시대,
 - ③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즉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하는 시대,
 - ④전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시대,
 - ⑤세계 무대의 중앙에 진입해 인류에 더 많은 공헌을 하는 시대

- 중국공산당은 신시대 중국사회의 주요 모순을 ‘인민의 나날이 증가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요구와 불균등·불충분한 발전’ 간의 모순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개혁개방정책의 부산물인 양극화, 부패 등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함.

 - 과거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규정했던 ‘인민의 선진

- 물질문화에 대한 요구와 낙후한 생산력' 간의 모순에서 진화²⁾
- 즉, 덩샤오핑의 통치사상과 전략을 계승하되, 중국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부국화→강국화)

□ 이를 위해 제기한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은 중국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포함함.

- 즉, 19대 기간(2017-2022)은 두 개의 100년(공산당창당 100주년(2021)과 건국 100주년(2049))이 중첩·교차하는 과도적·관건적 시기인바,
- 소강사회의 전면실현(2020) 이후 신시대에 부합하는 신 목표와 단계를 설정
- 구체적으로, 소강사회의 전면건설(2020) →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2035) →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2050)이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발전전략

〈표 1〉 중국의 단계별 발전목표

	기 간	목 표	의 미
1단계	2021 - 2035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 실현	인민의 공동부유 실현과 선도적 혁신형 국가 도달
2단계	2035 - 2050	부강, 민주, 문명적이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종합국력과 국제적 영향력을 주도하는 국가에 도달

출처: 저자 작성

2) 당시 덩샤오핑은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에 기반해 1990년까지 인민의 먹는 문제 해결, 2000년까지 소강 수준 달성, 2050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이란 소위 '3단계 발전론(三步走)'을 국가전략으로 삼고, '선부론(先富論)'에 입각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바 있음.

2. 신지도부 구성

가. 인선결과

- 19대에서는 새로운 임기 5년의 중앙위원(204명)과 중앙위원후보(172명)를 선출함.
 - 18대의 중앙위원(205명)과 후보위원(171명)과 대동소이

- 이어 개최된 19기 1중전회에서 중국의 최고 정책결정 그룹인 시진핑 총서기를 비롯한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출함.
 - 권력서열: 시진핑(習近平), 리커창(李克強), 리잔수(栗戰書), 왕양(汪洋), 왕후닝(王滬寧), 자오러지(趙樂際), 한정(韓正)
 - ※ 중앙정치국은 1년에 통상 1,2회의 중앙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폐회기간 동안 중국공산당과 중국을 경영하는 핵심 지도부

- 16기와 17기의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9인 체제였으나, 18대에 7인 체제로 축소되어 이번 19대에서도 그대로 유지됨.
 - 다만, 권력서열 1,2위인 시진핑 총서기와 리커창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5인은 ‘칠상팔하(七上八下: 67세 유임, 68세 퇴직)’의 관례에 따라 전원 교체(<표 2>참조)
 - 반면, 안정적인 후계구도를 위한 차기 지도자를 내정하는 ‘격대지정(隔代指定)’의 관례는 소실
 -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50년대 생이기 때문에 시진핑의 후계자로 지목될 수 있는 차세대 지도자는 부재

- 정치국 상무위원의 직무와 관련, 18기와 마찬가지로 7인 체제를 유지하게 됨에 따라 직무 배분도 커다란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유임된 권력서열 1,2위의 직무는 그대로 유지
 - 3위인 리잔수는 전국인대 상무위원장에, 4위인 왕양은 전국정협 주석에, 7위인 한정은 국무원 부총리에 오를 것으로 예상
 - 한편, 5위인 왕후닝은 중앙서기처 서기로, 6위인 자오러지는 기율검사위원회 서기로 선출

〈표 2〉 중국공산당 제19기 정치국 상무위원

서열	성명	출생 년월	연령	학력(학사)	19대 직위	비고
1	시진핑 (習近平)	1953.6.	64	청화대학 인문사회학부 법학박사	국가주석, 총서기, 중앙군사위주석	유임
2	리커창 (李克強)	1955.7.	62	북경대학 경제학원 경제학박사	국무원 총리	유임
3	리잔수 (栗戰書)	1950.8.	67	하북사범대학 정치교육과	전국인대 상무위원장	신임
4	왕양 (汪洋)	1955.	62	중앙당교 이론선전간부반	전국정협 주석	신임
5	왕후닝 (王滬寧)	1955.10.	62	상해사범대학 푸단대학 국제정치 석사	중앙서기처 서기	신임
6	자오러지 (趙樂際)	1957.3.	60	북경대학 철학과 중앙당교 석사	중앙기율검사위 원회 서기	신임
7	한정 (韓正)	1954.	63	화동사범대학경제학석사	국무원 상무부총리	신임

출처: 저자 작성

- <표 3>에서 보듯이, 정치국원은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포함, 쉬치량, 순춘란, 후춘화 등 3인이 유임되고 나머지 15인이 새로 선임된바, 이는 18기 정치국원 교체 비율과 같지만, 연령은 비교적 높은 편임.
 - 그런 점에서, 6세대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덩쉐샹, 천민얼, 후춘화가 차기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이나 시진핑의 후계자 경쟁구도를 형성할 가능성

- 이밖에 정치국원 중 주목되는 인사는 양제츠 현 국무원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발탁인바, 미국통인 양제츠가 정치국원에 선출되었다는 점은 대미관계를 위한 중국의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외교담당 부총리를 맡을 가능성을 더욱 높임.
 - 지난 1992년 14대에서 첸치천(錢其琛)이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되어 외교담당 부총리로 10년을 재임한 이후 처음 있는 사례
 - 이밖에 순춘란과 후춘화도 내년 전인대에서 부총리로 임명될 수 있는 후보로 거론

〈표 3〉 중국공산당 제19기 정치국 위원(정치국 상무위원 제외)

성명	출생년월	연령	출신지	학력(학사)	비고
당쉐상 (丁薛祥)	1962.9.	55	장수	푸단대학 행정관리 석사	신임
왕첸 (王晨)	1950.12.	67	베이징	중국사회과학원(석사)	신임
류허 (劉鶴)	1952.1.	65	허베이	인민대 석사 하버드 MPA	신임
쉬치량 (许其亮)	1950.	67	산둥	공군 제5 항공학교	유임
순춘란 (여, 孙春兰)	1950.	67	허베이	중앙당고 석사	유임
리시 (李希)	1956.10.	61	간수	서북사범학원	신임
리창 (李强)	1959.7.	58	저장	중앙당고 석사	신임
리홍중 (李鴻忠)	1956.8.	61	산둥	길림대학 역사학과	신임
양제초 (楊潔篪)	1950.5.	67	상하이	남경대학 역사학과	신임
양샤오두 (楊曉渡)	1953.10.	64	상하이	중앙당고 석사	신임
장여우샤 (張又俠)	1950.7.	67	산시	군사학원	신임
천시 (陳希)	1953.9.	64	푸젠	청화대학	신임
천취안궈 (陳全國)	1955.11.	62	허난	우한이공대학 관리학박사	신임
천민얼 (陳敏爾)	1960.9.	57	저장	중앙당고 법학석사	신임
후춘화 (胡春華)	1963.	54	후베이	북경대학 중문과	유임
귀성쿤 (郭声琨)	1954.10.	63	장시	북경과학기술대학 관리학박사	신임
황쿤밍 (黄坤明)	1956.11.	61	푸젠	청화대학 공공관리학원	신임
차이치 (蔡奇)	1955.12.	62	푸젠	복건사범대학 경제학박사	신임

출처: 저자 작성

나. 평가: 시진핑 시대의 공식화

- 19대는 향후 5년 간 중국을 이끌 시진핑 2기 체제의 출범과 함께 시진핑 시대를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됨.
- 주요 근거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16자 지도이념)’이 중국공산당의 지도이념으로 당장에 명기되었다는 사실임.
 - 중국공산당의 지도이념은 당의 집체적 결정이란 의미
 - 기존 중국공산당의 지도이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이론, 삼개대표론, 과학적 발전관인데,
 - 이번에 시진핑 이름이 병기된 데다가 ‘사상’으로 명명
 - 이는 시가 덩과 마오의 반열에 올랐음을 의미하기보다 향후 정책 성과에 따라 시진핑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근거로 작용
- 또한, 중국공산당 내에서 집단지도체제나 시진핑 1인 지배체제보다 안정적 통치를 위한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당 지배체제에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시진핑은 18기 6중전회에서 당의 핵심으로 등극
 - 마오 시기의 당 주석제가 부활되지 않고, 총서기제 유지
 - 퇴직연령 관행 지속, 격대지정 폐지
 - 시진핑의 측근인 소위 시자권(習家軍)의 지도부 대거 진입
 -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념, 당의 지배 등 강조
- 따라서 향후 당 지배 통한 시진핑의 독주가 가능하고 권력기반도 강화되겠지만, 장기집권을 시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후계 경쟁구도 과정에서 시진핑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나,

- 향후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한 가시적 성과와 헌법(국가지도자 급 직위의 3선 금지 규정) 개정에 대한 합의 도출이 정치적 과제와 부담으로 작용

III 19대 이후 대내외정책 방향

1. 대내정책 방향

가. 주요 전략 방침(14개)

□ 시진핑 2기 체제의 대내외 정책은 내년 3월 전인대 이후 구체화될 것이나, 당-국가체제(party-states system)인 중국의 특성상 당 대회의 주요 전략방향이 정부정책으로 반영될 예정임.

□ 19대의 보고에서 제시된 14개의 기본 방략은 다음과 같음.³⁾

- 당의 영도, 인민 중심, 심화 개혁, 신 발전이념, 인민주권, 의법치국, 사회주의 핵심 가치체계, 민생 개선과 보장,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 국가안전관, 당의 군대 영도, 일국양제와 조국통일,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엄격한 당 관리 등

나. 정치개혁

□ 시진핑은 신시대 개혁 차원의 국내발전과 안정적 통치를 위해 당과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과 같은 개혁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당의 영도 능력 강화, 사회주의 제도와 국가치리(治理)체계의 현대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와 법치국가 건설 등

3) “關於十九大報告,你必須知道的‘關鍵詞’,” <<http://cpc.people.com.cn/19th/n1/2017/1018/c414305-29595155.html>> (검색일: 2017.10.28.).

- 경제발전과 시진핑 권력기반 강화를 위한 반부패 정책도 법제화의 방향으로 지속, 강화될 것임.
 - 반부패 국가입법과 국가감찰법 예고
 - ‘의법치국(依法治國)’ 관련 중앙영도소조 설치

다. 경제정책

- 중국은 소강사회의 전면실현(2000)과 신시대로의 진입을 위해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함께 도모하면서 경제구조 조정과 성장 동력을 전환하는 개혁 개방정책을 지속할 것임.
 - 과학기술의 혁신주도와 민생 중심의 소비주도 성장 정책 실시(〈표 4〉 참조)

〈표 4〉 19대 보고에서 언급된 10대 유망분야

주요 방침	주요 전략	유망 분야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공급측 개혁 중국제조 2025 인터넷+	- 선진제조업,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신에너지 자동차, 녹색저탄소, 고유 경제, 현대서비스업 - 인프라 분야(수리, 철도, 도로, 항공, IT, 물류 등) - 소비재산업
혁신형 국가건설	중국제조 2025 인터넷+ 대중창업, 민중혁신	- 공유경제, IT, 전자상거래 - 지적권보호 관련 서비스 - 스타트업 분야 - 스마트 시티
향촌 진흥	삼농	- 현대 농업, 6차산업, 현대 유통업 - 인프라 분야(수리, 철도, 도로, 항공, IT, 물류 등)
지역조화 발전전략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진흥 징진지, 송안신구 도시화	- 인프라 분야(수리, 철도, 도로, 항공, IT, 물류 등) - 해양산업 - 빈곤탈피 - 스마트시티

주요 방침	주요 전략	유망 분야
사회주의 시장경제	경제개혁 전면심화	- 자유무역구, 자유무역항 - 국유기업 개혁(혼합소유제) - 현대 서비스업(법무, 재무, 지적권 관련)
전면 개방추진	일대일로	- 현대 서비스업(법무, 재무, 지적권 관련) - 인프라 분야(수리, 철도, 도로, 항공, IT, 물류 등)
사회주의 문화육성	-	- 문화콘텐츠, 스포츠산업 - 레저 산업(캠핑장 건설, 캠핑용품 등)
민생보장	빈곤탈피	- 교육산업 - 금융산업(양로보험) - 주택 개조관련 인프라 분야
건강한 중국	건강중국2030 식품안전 강화	- 의료보건(의료기기, 의약품, 보건식품 등)
아름다운 중국	녹색발전	- 친환경, 녹색저탄소, 환경보호산업, 자연생태복원산업 - 녹색생산, 녹색 소비 육성 - 환경기술, 청정에너지 산업 등

출처: 김윤희, “중 19차 당대회, 시진핑 2기 ③신시대, 주목해야 할 신성장분야”(KOTRA 해외 시장뉴스, 2017.10.26.), p.2.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4/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62059>> (검색일: 2017.10.26.).

라. 국방

□ 2050년 사회주의 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중요한 원천인 국방 분야에 대한 개혁과 현대화도 강화될 것임.

- 2050년까지 세계 일류 군대 위한 신시대의 ‘강군몽(強軍夢)’ 실현
- 현대화된 육, 해, 공, 미사일 및 전략 지원부대의 건설
- 고효율의 전구(戰區) 연합작전 지휘기구 설치

2. 대외정책 방향

- 평화와 발전을 시대의 조류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은 ‘신형국제관계’의 추진과 ‘인류운명공동체’ 건설로 집약할 수 있는 신시대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를 주창하고 있음.
 - 세계평화 수호 및 공동발전 축진의 외교정책 기조 하에, 평화공존5원칙에 기초한 세계 각국과의 우호협력 관계 발전
 - 신형국제관계의 핵심은 상호존중, 공평정의, 상생협력
 - 인류운명공동체는 항구적 평화, 보편적 안전, 공동번영, 포용개방, 청결하고 아름다운 세계 등 5개 세계의 건설을 의미⁴⁾

- 국내 발전과 안정을 위해 외부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한편, 중국의 꿈 실현에 부합하는 국제질서 형성에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변화된 위상에 바탕을 둔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국제관계를 구축하려는 정책 방향을 유지할 것임.
 - 18대의 신형대국관계, 핵심이익(주권, 영토, 발전), 해양강국화 등이 삭제되고,
 - 19대에선 ‘신형국제관계’, ‘일대일로’, ‘친밀(親)·성실(誠)·호혜(惠)·포용(容)’의 우호협력과 공평을 강조하는 대주변국 외교 등을 삽입
 - ※ 18대에서 중국은 신형대국관계와 핵심이익 등을 강조해왔는데, 주로 미국 등 강대국관계를 중시한다는 점과 자신을 대국으로 치칭하는 점으로 인해, 강대국과의 마찰은 물론 주변의 중·소국들로부터도 지지를 얻지 못했는바, 그 대체

4) “王毅談新時代中國特色大國外交總目標:推動構建人類命運共同體,” <<http://fimprc.gov.cn/web/wjbjzd/t1503111.shtml>> (검색일: 2017.10.27.).

재로 신형국제관계를 제시한 것으로 분석됨.

- 대소국과 평등한 국제관계의 민주화와 공동이익 창출에 부합하는 역할을 추구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기존 강대국(미국)과의 차별성 부각
- 또한 중국의 꿈과 사회주의 강국이란 비전 제시에 따른 '중국위협론' 제기 가능성 사전에 제어하려는 포석

□ 반면, 신시대의 중국은 세계 중심에 진입해 인류에 많은 공헌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향후 책임대국의 역할 수행과 영향력 확대에도 적극적일 것임.

- 인류운명공동체, 국제관계의 민주화와 UN의 역할 증시, 글로벌 관리체계의 개혁과 건설 등에 적극 동참 표명
- 이는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과 영향력 확대를 위한 규범 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

□ 또한 미국과 안정적·균형적 대국관계를 구축하려는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G2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기구와 협정을 중시하며 양보와 타협을 통한 실리확보에 주력할 것이나, 핵심이익 침해에 대해서는 강경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됨.

- 다자간 무역체제, 일대일로외 강조
- 강대국의 약소국 무시와 자국 의지를 타국에 강요하는 것 반대

□ 특히, 중국은 자국 중심의 관점과 이익이 중화 민족주의와 더 강력해진 시진핑의 리더십 등과 결합될 경우, 미국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것이며, 이에 따라 미중관계는 전략적 협력과 경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일상화되는 특징을 보일 것임.

- '중국은 절대 타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자신의 정당한 권익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이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쓴 열매를 삼킬 것이라는 헛꿈은 버려야 한다'

IV 한반도에 대한 함의

1. 미중관계의 전망과 한반도 영향

- 19대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시진핑 2기 지도부의 대내외 정책적 과제는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한 혁신적 경제발전과 자국에 유리한 질서형성 및 영향력 확대인바, 향후 중국은 평화 협력적 대외전략 기초를 유지하되, 자국의 영향력 확대에 유리한 질서 형성을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할 것임.
-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중국의 행위를 더욱 견제 내지 통제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미중관계는 협력이나 갈등 위주가 아닌 상호 협력과 갈등이 복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미중관계가 기존의 하드 파워(군사력과 경제력) 경쟁을 넘어 가치와 규범을 포함하는 전략적 경쟁관계로 돌입함을 시사
- 즉, 향후 미중관계는 협력이 우세한 가운데 갈등이 점차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궁극적으로는 규범 경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다차원의 쟁점들을 양산할 것임.
 - 글로벌 차원의 쟁점들인 지구적 경제질서, 국제해양질서, 테러리즘, 기후변화와 환경, 인권 등은 협력과 경쟁이 공존
 - 지역 차원의 쟁점들인 대만, 남(동)중국해, 북핵, 사드, 일대일로, 다자안보협력 및 동맹 등은 갈등과 대립적
 - 한반도 차원의 쟁점들인 한미동맹, 남북관계, 평화체제, 한반도 통일 등은 지역 쟁점과 연계될 경우 불거질 수 있는 잠재적 갈등사안

- 특히, 미중 간 잠재된 무역불균형, 환율조작국 지정, 지적재산권 등 통상마찰이 북핵 및 다른 지역차원의 쟁점들과 연계될 경우, 미중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임.
 - 동아시아의 불안정성 및 불확실성 증대
 -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지역 대립구도 형성을 촉진
 - 한국에 대한 미중의 요구 증가
 - 한국의 대외적 자율성 제약 및 한반도 통일 환경에 부정적

2. 한반도정책과 한중관계

- 시진핑 집권 2기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외전략에 따른 한반도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속에 방점을 두면서 점진적 변화를 추구할 것임.
 - 이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 비핵화, △대화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란 원칙도 지속
- 19대 기간은 2050년까지 중국의 꿈 실현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관건적 시기인바, 중국은 안정적인 외부환경과 자국 주도의 질서형성에 유리하도록 한반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점진적·전략적으로 증대시키려는 정책을 구사할 것임.
 - 그런 점에서, 북한과는 북핵문제로, 한국과는 사드문제로 관계가 악화된 상황을 개선시킬 동기 보유
-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 통한 공존공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면서 지역(세계) 차원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려 할 것임.

- 미국 견제에 대응하면서 주도권 경쟁을 위한 외교안보적 완충지대
- 중국은 신형국제관계의 구축자, 세계 평화의 건설자, 글로벌 경제의 공헌자, 국제질서의 유지자가 되는데 한국의 협력이 필요한 바, 사드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 개선을 모색할 것임.
 -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를 억제하는 효과
 - 사드 논의와 한중관계 개선을 별개로 추진
-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 대화 통한 비핵화 등 한국 정부의 정책 기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중국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회복을 통해 북핵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협력을 모색할 것임.
 - 대미·일 관계를 고려한 한국과의 관계설정은 여전히 중요
 - 한국과의 협력은 중국 주도의 질서 형성에도 긴요
- 그러나 중국은 지역 및 글로벌 강대국으로서 한중관계의 의제를 주도적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은바, 한중관계의 회복 과정에서 이견 조율과 협력 수준을 조정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될 것임.

3. 북핵정책 및 북중관계

- 한반도정책의 기초 하에서 보면, 중국의 대북(핵)정책 역시 변화의 측면보다 지속적 측면이 우세할 것임.
 - 북한의 평화와 안정, 북핵 보유 반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기존의 대북정책 목표도 단기간에 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북한의 지정학적·안보적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한반도의 현상

을 타파할 수 있는 북한의 급변사태나 급격한 통일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

- 중국은 시진핑 집권 2기에도 기존 북핵과 북한을 분리한 대화와 제재의 두 트랙 접근이나 대화에 방점을 둔 북핵 정책에 근본적 변화를 주지 않을 것임.
 - 즉, ‘쌍궤’와 ‘쌍잠정중단’의 정책 역시 고수
 - 두트랙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협상이며, 구체적 로드맵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중단→ 한미 군사훈련 잠정 중단→ 대화 개시→ 무력불사용, 불가침, 평화공존의 총원칙 확정→ 핵문제 포함한 모든 문제 일괄타결(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보기제)→ 관계 정상화⁵⁾

- 책임대국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은 북한의 추가 핵·ICBM 실험 시에도 UN을 통한 대북제재를 지속할 것임.
 -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의 대북제재 범위와 강도도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북중관계의 악화 추세도 지속
 - 단, 북한체제의 붕괴나 혼란을 초래하는 수준까지는 불압박

- 중국의 관건적 시기와 북한의 핵 개발이 완성되는 시점이 중첩되기 때문에, 중국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 북한 변수가 중국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한편, 중국의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의지도 증대

5)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和俄羅斯聯邦外交部關於朝鮮半島問題的聯合聲明,” <<http://www.fmprc.gov.cn/web/zyxw/t14753562.shtml>> (검색일: 2017.07.06.).

- 다만, 북한 붕괴를 야기하는 수준의 조치나, 대북 군사옵션 사용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강경한 대응으로 통제
- 특히, 북한의 정책을 중국의 국익에 유리하게 통제, 유도하기 위해 중국의 대북 관여(engagement)정책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함.
 - 중국은 북한과 전략적 소통을 통한 영향력 강화를 시도할 가능성⁶⁾
 - 이렇게 강화된 영향력을 비핵화와 북한 변화를 유도하는 등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
 - 즉, 남북대화 및 북핵 관련 회담 재개 등의 대화국면을 조성하는 한편,
 - 중국 주도의 질서 형성에 유리하도록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
- 그러나 향후 북중관계는 미중관계의 하위에서 운용될 개연성이 큰바, 미중 협력과 갈등관계에 따라 깊은 영향을 받을 것임.
 - 미국의 단독 제재(군사적 옵션포함) 강행 시⁷⁾ 미중갈등 증가와 북중관계 호전
 - 미중 타협 시, '제재 통한 대화'로 북중관계 관리조정
- 다른 한편, 향후 북한은 중국의 요구에 대한 수용을 검토하면서 관망, 접촉(대화), 재도발(핵실험)의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북중관

6) 그런 점에서, 지난 10월 18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보낸 19차 당대회 축전과 10월 26일 김정은 위원장 명의로 시진핑에게 보낸 축전, 그리고 11월 1일 이에 대한 시진핑의 답전은 주목됨. 물론, 북한의 축전이 의례적인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어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기는 곤란하지만, 이는 북중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소통의 끈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임. 『노동신문』, 2017년 10월 18일자 2면과 『노동신문』, 2017년 10월 26일자 1면, 『노동신문』, 2017년 1월 2일자 1면.

7) 이 경우, 미국의 소위 4No 방침(북한 정권교체, 붕괴, 통일가속화, 38선 북진)은 재검토

계도 변화될 여지 있음.

- 관망 시, 현 구도유지와 이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
- 재도발 시, 북중관계 악화와 협력 중단
- 대화 시, 소통 채널 복원 및 협력 수준 일정 회복

V 정책적 고려사항

■ 실질적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

- 시진핑 2기 체제의 당면과제인 평화발전과 사회주의 강국화를 달성하는 데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고, 우리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필요한바, 한중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회복과 제도화를 추진함.
 - 큰 틀에서 ‘선 교류회복, 후 협력모색’
 - 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 요인을 상수로 설정하고, 우리의 당면과제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 모색

■ 한중 신정부 간 신뢰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

-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 시진핑 2기가 공식화된바, 한중 신정부 간 신뢰형성을 위한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고 다차원·다층적 정책협력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함.
 - 각 부문별 협력 방향의 체계적 설정과 통합 관리·조정
 - 현 외교부 차관급 전략대화를 외교+경제 장관급 전략경제대화로 격상
 - 각 분야의 정부 간 대화 채널 복원 및 제도화
 - ※양제츠, 왕이 등 외교라인과 함께 왕후닝의 역할을 주목

■ 신형 한중관계 수립

□ 중국은 사회주의 대국외교의 핵심인 신형 국제관계의 추진과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폭 넓은 협력 가능성도 열려 있는바, 사드 이전의 한중관계를 회복한 후 <신형 한중관계 수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북한 비핵화 및 변화 유도 위한 협력방안 마련

□ 특히, 중장기적으로 한중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중국의 인류운명공동체와 한국의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의 공통분모를 활용하고,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연계방안을 모색함.

■ 북중관계 변화에 따른 한중관계의 전략적 관리

□ 북중관계의 악화 속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과도한 기대를 자제하되, 북중관계의 호전은 대북제재 효과 및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대화국면 조성과 북한변화 유도에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는바, 한중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 있음.

-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대화 채널 유지도 필요

- 특히, 남북관계는 북한(핵)문제에 중국의 협력을 유인하는 데 필요

■ 미중 전략적 협력과 경쟁관계의 변화에 대비

□ 향후 미중 규범경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에 대비, 미중 갈등에 연루되지 않고

우리의 국익에 기반한 일관성 있는 원칙을 마련하는 한편, 미중 갈등의 공간을 활용한 평화협력의 가치외교를 통해 우리의 역할 공간을 확대함.

- 미중갈등이 증폭될수록 우리의 역할 공간도 축소될 수 있으며 미중협력이 증가하면 우리의 이익과 무관하게 전개될 개연성도 존재하기 때문
- 따라서 양다리 걸치거나 편승전략을 지양

- 아울러, 한미관계를 근간으로 한 한중관계 관리방안을 마련하되, 궁극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중 협의체를 추진함.

■ 중화민족주의의 형성을 경계

- 중화민족의 부흥과 중국의 꿈 실현을 강조하는 중국은 내외부의 불만이나 자극이 주어질 경우 중화민족주의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바, 중화민족주의의 폐쇄적 민족주의화를 경계하는 한편, 중화 민족주의가 대중화주의(Great China)로 확산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함.

■ 대중 정책공공외교의 강화

- 한중 간의 신뢰증진을 위해서는 양국 국민 간의 우호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나, 사드로 불거진 양국의 반중반한 정서를 해소하고 상호 지속적 교류 통한 이해증진 차원에서 공공외교를 확대, 강화함.
 - 역내 평화, 번영, 협력 등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
 - 인문사회 분야의 교류 증대 및 제도화

■ 동북아지역의 평화협력 환경 공동 모색

- 미중 경쟁 및 중일갈등이 한중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바, 동북아의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외교안보정책의 조정이 필요함.
 -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한 3자 간 협력의 공통분모를 찾아 중일갈등 방지
 - 동북아지역의 경제 및 안보협력을 통한 평화협력적 질서 구축
 - 경제안보협력의 연계 통해 북한을 유인해 궁극적으로 책임공동체 지향